

‘미술 마라톤’ 반환점 도는 선수 위해... 나도 같이 달릴 겁니다

2015 아시아프 ‘히든 아티스트’ 심사위원 맡은 하종현 화백

“나도 그림 안 팔리던 ‘숨은 작가’ 단색화로 여든에 뒤늦은 전성기 한우물 파운 30·40대 작가들의 젊은 작품, 성실하게 심사할 것”

“외로운 젊은 예술가의 길에 동행자가 돼 주겠습니다. 어두운 작업실에서 잠시 밝은 데 나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시험하는 무대에 한번 서보세요.”

올해 아시아프 특별전으로 30~40대 작가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Hidden Artists 100(숨겨진 100인의 아티스트를 찾아라!)’의 심사위원을 맡은 하종현(80) 화백이 후배 작가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다. 하 화백은 요즘 미술계 최고 화두인 단색화 열풍의 중심에서 있다. 여든에 맞은 전성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 주엔 베네치아까지 갔다. 베네치아 비엔날레 병행전시로 열린 ‘단색화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13일 경기도 일산 작업실에서 만난 한 화백은 아직 채 여독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피곤에 전 그를 흔쾌히 인터뷰로 이끈 단어, ‘30~40대 젊은 작가’였다.

“예술이라는 마라톤에서 출발, 중반, 도착,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지점이 없어요.



박상훈 기자

“이게 내 40년 화가 인생 콜라주예요. 젊은 날 그림 접었다면 이런 작품 없었겠지요.” 하종현 화백이 일산 작업실에 걸린 2008년작 ‘접합 08-101’ 앞에 섰다. 1970~2000년대 그림과 철조망을 붙여 만든 작품. 화백이 가리키고 있는 틀째 거꾸로 붙은 그림 뒷면엔 ‘74년’이란 연도가 선명하다.

그중에서도 30~40대 ‘중반부’는 중요해요. 결혼하고 애 낳고 교육시키다 보면 생활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작품 할 수가 없거든. 상대를 의식해서 그림 그리게 되고, 결국 그림에 자기는 없어지고...”

어느새 그는 30~40대 ‘젊은 하종현’을 추억하고 있었다. 1970년대 신촌 창천아파트 9평 집에 네 식구가 살았다. 연탄불 때는 아파트였는데 아침이면 애들 안 죽었나 흔들며 깨우는 게 일이었다. “애들 연탄가스 안 마셨나 확인하고, 동치미 국물 먹이고, 교수(홍익대 미대)라 고생 없이 산 줄

아는데 늘 어려웠어요. 봉급으로 돈 안 되는 작품 했으니. 그때 나온 게 단색화야.”

작업실 한편엔 요즘 최고의 주기를 올린 70년대 단색화 대표작 ‘접합’ 시리즈가 걸려 있다. 미군이 군량미를 담았던 마대 자루를 잘라 뒷면에 물감을 발라 밀어 넣은 배압법(背押法)으로 만든 작품이다.

“나야말로 그땐 ‘숨겨진 작가(히든 아티스트)’였지. 숨고 싶어서 숨은 게 아니라 세상이 안 두드려줬으니(웃음). 그래도 그림으로 나를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작업했지. 그러니 말년에 이런 결과도 있

는 거고.” 2008년 작 ‘접합 08-101’ 앞에 섰다. 1970~2000년대 그림을 뜯어낸 뒤 철조망과 콜라주해서 만든 작품이다. “화가 인생 40년의 콜라주인 거지요.”

그는 “40년 전 어려운 시절의 나 같은 젊은 작가들이 아직 많다”고 했다. “갤러리에서도 (예술가로서) 도망가지 않을 나이를 찾다 보니 중견 작가 이상을 선호해요. 30~40대 작가들의 설 자리가 적을 수밖에. 그러나 ‘예술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배 화가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꺼냈다.



숨겨진 ‘이중섭’을 찾습니다

‘2015 아시아프(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에서 30~40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 ‘Hidden Artists 100’이 열린다. 하종현 화백, 오광수·송미숙 미술평론가, 김노암 세종문화회관 전문위원, 박명자 갤러리현대 회장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작가 100명이 선정된다. 선정 작가는 특별전 구역에서 전시·판매하게 된다.

▲기간 : 2015년 7월 7~19일(1부)

7월 21일~8월 2일(2부)

▲장소 :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

접수는 18일까지 hiddenartists.chosun.com

“어두운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어요. 가끔 밝은 데(전시장) 나와 내 그림이 어디까지 왔는지 냉정히 평가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가 당부했다. “공모전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은 사절입니다. 옆길 안 보고 한 우물 파는 작가, 진지하게 작업하겠다는 의지 있는 작가들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다. “심사위원들이 공정히 심사하고, 좋은 작품들 성실히 뽑을 테니 믿어주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심사위원으로 젊은 작가를 만나러 간다는 노장의 묵직한 일성(一聲)이다. 김미리 기자